

[신앙+] 복자 황일광 시몬의 편지 '나의 순교, 당신의 순교'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례한 '하느님의 종 124위' 시복식

오늘 한국교회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을 이동하여 경축합니다. 한국교회는 103위 성인, 124위 복자 등 수많은 순교자가 흘린 피로 세워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교회입니다. 자랑스러운 신앙선조들이 물려준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기독교+서울>은 천민 출신 복자 황일광 시몬(1757~1802)의 삶과 신문 기록을 토대로 하여 복자 황일광 시몬이 현시대 신앙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재구성했습니다.

나는 황일광 시몬. 내가 살던 조선의 철저한 계급사회 속에서 백정은 인간 이하의 치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노비, 무당, 기생 등 여러 천민 중에서도 가장 멸시받는 '천한 것'이었어요. 백정인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마을을 이뤄 모여 살았고 다른 계급의 사람들과는 대화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1792년 무렵 나는 홍주를 떠나 홍산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존장 루도비코 형제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를 찾아가 교리를 배우고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죠. 그 이후 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동생 차돌이와 함께 경상도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교우들은 나의 신분을 모두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교우촌에는 신분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신앙의 벗으로 대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줬어요. 우리는 천주 안에서 굳은 신앙심으로 뭉쳐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하나였습니다.'(갈라 3,28) 동생과 나는 서로를 붙잡고 평평 눈물을 흘렸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내가 양반들과 어울려 천주학을 논하는 이 상황을 상상조차 할 수 있었겠어요? 나에게 천당은 이 세상에 하나가 있고, 후세에 하나가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현세의 천당에 살던 중, 한양에 있는 정약용의 형 정약중 아우구스티노를 찾아가 그 집의 일을 도우며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양반인 정약중 형제와 나는 함께 기도하고 한 밥상에서 밥도 먹었죠.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께 세례도 받고 미사에 참여하며 내 신앙심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천주로 인해 나 자신도, 나아가 천민 중의 천민인 백정도 천주에 버금가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됐어요.

1801년 신유박해 때, 나는 땔나무를 하러 갔다가 포졸들에게 체포돼 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문초와 가혹한 형벌을 받으며 살이 찢기는 고통에서도 나는 오직 천주만 생각했어요. 물론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진 않았어요. "만 번 더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천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보란 듯이 소리쳤습니다. 관리들은 내 한쪽 다리가 으스러질 때까지 더욱 혹독하게 매질하더군요. 고향 홍주로 이송돼 참수되기 전까지 내 아내와 아들을 보면 혹여 마음이 약해질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천주께 갈 준비가 됐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두 번째 천당에 들었습니다.

나와 정약중, 주문모 신부를 비롯한 124위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복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시대를 사는 여러분은 우리와 같은 순교자가 될 수 없을까요? 목숨을 바친 것만이 순교는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순교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먼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세요. 가장 소외된 이웃들과, 남들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더 나아가 후손들에게 순교자들의 영성을 삶으로써 증언해주세요. 물론 희생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시대의 순교가 아닐까요?

구여진 플로라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